

학장 인사말



올해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개교 11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가 종합대학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 관악산에 등지를 뜬지 43년이 되었습니다.

간호대학은 16개 단과대학 중 관악캠퍼스가 아닌 곳에 자리한 유일한 대학입니다. 이에 저희는 동문과 재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의 염원을 담아 관악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호대학은 연건캠퍼스에 위치한 지리적 한계로 인해 관악 캠퍼스 내 다양한 학문과의 협력, 학생들의 복수 전공, 연계 전공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종합대학인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우리 학생들의 복지, 문화 혜택 또한 제한적이었습니다.

미래교육의 핵심은 융합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쏟아지는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려면 학제 간 융합이 필수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간호 로봇도 개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연건 캠퍼스의 고립된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과 연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간호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대학은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지상 4층 규모의 복합연구교육동 건설을 계획하고 학교에 국고 지원금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관악캠퍼스 건립 30

억 건축 기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2학기 부터는 전공과목 6개를 관악에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간호대 교수진은 캠퍼스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학제 개편도 준비 중입니다. 과도한 전공 필수수업의 부담을 줄여 원하는 교양수업을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학사과정도 바꿀 계획입니다. 연건 캠퍼스는 전공 수업과 임상 현장 실습, 그리고 대학원생 연구공간으로 특화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미래사회를 이루어가는 세계적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동문, 재학생, 교직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만들어 가요~ 간호대학의 관악시대!

2018년 4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최스미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박현애 교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우리대학 박현애 교수가 2017년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되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의학, 간호학, 보건학, 약학, 치의학, 영양학 등 의과학분야 석학들의 모임이다. 박현애 교수는 2018년 1월 25일에 열린 의학한림원 정기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입회하였다.

박현애 교수는 1980년 본교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간호학 석사학위, 보건통계/보건정보학 전공 이학석사와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SCI/SSCI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31편 및 공동저자 논문 30편을 포함해 총 220편의 논문을 출판했다. 세계간호정보학회, 세계의

료정보학회, 국제표준화기구(ISO) 보건 의료정보기술위원회 한국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와 발전에 기여하였다.

현재 대한의료정보학회 편집위원, Applied Clinical Informatics 부편집위원장, 대교협 대학학문분류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계보건의료정보학술원(IAHSD)과 미국의료정보학술원(ACMI) 회원이며, 미국간호학술원 정회원(FAAN)이다.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주요 보직현황

- 이남주 학과장 → 학생부학장(2018. 1. 1.자)
- 학과장 취임 : 윤주영 학과장(2018. 3. 1.자)
- 입학처 부분부장(본부 보직 발령) : 박연환 교수(2018. 3. 1.자)

- 평위원회(환경문화 복지위원회)위원장 : 박현애 교수(2017. 11. 1. 자)
- 정년퇴임 : 이명선 교수(2018. 2. 28.자)
- 신입교수 임용 : 이경숙 교수(성인간호학, 2018. 3. 1.자)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신입교수 임용 - 이경숙 교수

2018년 1학기부터 성인간호학 분야에서 연구 및 교육을 맡게 된 신입교수 이경숙입니다. 모교에서 선배 교수님들과 후배들과 함께 간호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2000년 청운의 꿈을 품은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 모교에 헌신하고 기여할 수 있는 교수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은, 크나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 후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전문의료인으로서 첫 간호 업무를 시작하여, 힘들었지만 중요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긴박하고 엄숙한 의료 현장은 대학 시절 배운 이론과 실무를 더 내실 있게 다져주는 공간이었고, 전문의료인으로서 겸손과 책임감, 협력심을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면서 틈틈이 유학 준비를 하여, 은사님들의 유익담을 통해 알게 된 선진 의료 환경과 교육을 2007년에야 직접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학시절 '심혈관 질환을 가진 대상자'에 대한 관심, 그 중에서도 이 대상자들의 '자가 관리'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양적 방법론'의 유용성을 알게 되어 '보건통계학'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자 했습니다. 한편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현장 경험을 쌓으면서 '인간 존중과 상호협력적 자세'를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구자로서만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미국 우수 대학과 국내 국립대학에서 간호학 교수 직책으로 본격적인 연구와 교육을 6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학부 및 대학원 강의 시 학생들과의 개별 면담 등을 통해, 학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도와주기 위한 '조력자'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였고, 연구 시에는 심혈관 질환자를 포함하여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으며, '다학제간 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공동 연구를 향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부생에게는 '인간돌봄'이라는 간호철학에 바탕을 둔 지식과 경험이 잘 전달되고 공유되어 보건전문의료가로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대학원생에게는 연구에의 참여 기회를 자주 부여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학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울러 유학 시절 및 타국 학자들과의 국제 교류를 통해 얻은 '간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이 국제적인 기준과 환

경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유능한 간호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1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간호학계의 리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미래를 열기 위해 여러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인간 돌봄'이라는 간호학 본연의 철학을 바탕으로 간호대상자, 지역 사회 및 국가에 기여하는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서 더 크고 높은 움직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선배 교수님들과 학생들, 동문 선배님과 더불어, 연구하고 교육하며 헌신하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간호대학 소식 02

연구실 탐방 모성가족간호 연구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모성가족간호 연구실은 김혜원 교수님과 모성간호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모인 연구실이다. 김혜원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로서 학부생과 대학원생 지도에 힘쓰시며 수업과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 모성가족간호 연구실은 박사 2명, 석박통합 1명, 석사 1명의 전일제 학생들로 구성되어 총 4명의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모성 및 여성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8년 교수님의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과 함께 매 주 재학생들은 교수님과 연구 모임을 갖는다. 연구 모임에서는 연구 진행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의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견을 공유한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태도를 배울 수 있으며, 이는 화합과 친목 도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수님은 현재 두 가지 연구를 진행 중이신데 하나는 4월말까지 진행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올해 3월에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첫 번째 연구과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은 과제로 프로젝트명은 'HPV와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간호의 확대된 역할 규명'으로서 이번이 3년차 마지막 과제였다. 이 연구를 통해

1.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간호연구가 새롭게 초점 두어야 할 현상과 이슈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였고,
2. 연구결과에 의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시도가 적극적이고도 확대된 간호 역할이 효과적이었음을 제시하였다.

이로서 지난 9년 동안 수행한 "자궁경부암 예방에서 양성평등 접근, 조기발견을 위한 간호방안 및 간호의 역할 확대 프로젝트"는 마무리 짓게 되었다.

2018년 3월에 새로 출발하는 연구프로젝트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총 5년간 수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 프로젝트 명은 "생애주기 고 위험 임신 예방 인식 및 고 위험 임신 여성의 맞춤형 간호중재 개발: 양성 평등 접근"이다.

이 과제의 근본철학은 위에서 언급한 자궁경부암 예방프로젝트에서도 적용되었던 것과 같은데, 생애주기와 양성평등 접근을 중요 관점으로 전제하고 있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여성대상 연구에서 그 범위와 내용을 확장하는 것으로 어떻게 양성평등을 연구에서 구현하고 제시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모든 건강문제, 또는 임신이라는 현상이 여성만의 문제인지, 여성 대상자만으로 국한된 연구가 얼마나 문제를 잘 드러내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과학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관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올 해 1년차 과제에서는 어떻게 고 위험 임신이란 주제를 여러 연령층의 남녀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지, 그 중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고 위험 임신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면 그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떤 탐색이 가능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인 문헌 연구와 포커스 인터뷰 및 조사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모성가족간호 연구실 석사수료생 강유정〉



간호대학 소식 03

행복나눔 - 최스미 학장 1억 기부

우리대학 최스미 학장이 관악캠퍼스 간호대학 건축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

최스미 학장은 “연건과 관악캠퍼스 통합에 관한 동문 및 학생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기부를 결심했다.”는 기부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더 많은 동문과 인사들이 선한 간호 인재 양성을 위한 관악캠퍼스 간호대학 건축 기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스미 학장은 이번 기금 이외에도 간호대 위임기금과 버스구입 지원금, 중앙도서관 시설환경개선기금, 규장각 학술기금, 체육교육과 연구동 건립기금 등을 후원하며 꾸준히 서울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최스미 학장의 기부에 감사를 전하고자 서울대는 2018년 3월 15일(목) 관악캠퍼스에서 성낙인 총장과 최스미 학장, 정재원 교무부학장과 이남주 학생부학장을 비롯해 주요 교내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간호대학은 관악캠퍼스의 다양한 수업과 활동에 참여하고픈 간호대 재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보다 융합적이고 다양성을 겸비한 간호 인재 양성을 위해 <관악캠퍼스 간호대학 신축을 위한 건축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최스미 학장의 기부를 시작으로 간호대학은 관악캠퍼스 이전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간호대학 소식 04

2018학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장학금 수여식

2018년 2월 27일(화)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기부자와 장학생이 함께하는 「2018학년도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가졌다.



(재)서울대발전기금은 220여 장학기금을 운용해 재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기부자와 장학생간 만남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올해로 벌써 12회를 맞이했다.

우리대학에서는 최스미 학장과 함께 간호대학 17학번 이수현, 16학번 정다솔, 15학번 차혜전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수여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성낙인 총장을 비롯해 주요 기부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 인사말, 이대건 동문의 격려사, 장학증서 수여, 장학생 답사(독어독문학과 이우주 학생, '17입학) 등으로 식이 진행됐다.

간호학 발전의 지평을 여는 주역들이 큰 꿈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는 서울대학교의 뜻을 전달받아 간호대학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알찬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간호대학 소식 05

국제교류 - 7th HongKong International Nursing Forum 참석 및 홍콩대학교와 MOU 체결

2017년 12월 18일~19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최스미 학장, 정재원 부학장, 이남주 부학장, 탁성희 연구소장, 최희승 위원장, 고진강 홍콩대학 담당 교수가 홍콩대학교 주관 학술대회 '7th HongKong International Nursing Forum'에 초청받아 University of Hong Kong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홍콩대학교와 교육과 연구 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협약식은 최스미 학장을 비롯한 간호대학 학장단과 Dean Chia-chin Lin을 포함한 홍콩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양 대학은 이번 MOU를 통해 공동연구와 세미나, 학술 및 학생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대학 소식 05

국제교류 - 홍콩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진 본교 방문

2018년 1월 10일 대학 간 교수 연구 협력 및 학생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홍콩대학교 간호대학 Dean Chia-chin Lin, Dr. William Li, Dr. Kelvin Wang, Dr. Janet Wong, Dr. Jay Jung Jae, Dr. Edmond Choi가 우리대학을 방문하였다.

University of Hong Kong은 세계 대학 랭킹 30위권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국립종합대학으로 세계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들이 포진되어 있는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꼽힌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 여러 교육문화와 교류하여 우리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간호대학 소식 06

종합실기시험

2017년 11월 10일 시뮬레이션 기반 종합실기시험이 사인센터에서 시행되었다. 졸업예정자 58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량 발휘를 위한 성취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간호대학 소속 교수 16명이 참여하였다.

2013년에 처음 시작된 종합실기시험은 매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에 합격해야 졸업자격을 갖추게 된다. 5년차에 접어든 이번 시험에서는 'COPD 노인환자의 호흡기계 간호 모듈', '항암화학요법중인 청소년의 입원 및 항생제 투여 모듈', '제왕절개 수술 산모 모듈'의 총 3개의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각 모듈은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및 지역사회 간호학 간 통합적 교과과정을 반영하여 모듈별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핵심기본간호술기 1개와 난이도가 낮은 술기 1개를 조합하여 최종 개발된 것이다.

2017년에 시행된 종합실기시험에서는 응시자 58명 중 46명이 1차 통과하였고(합격률: 79.30%) 11월 24일에 시행된 2차 평가를 통해 나머지 12명의 응시자들이 전원 통과하였다. 또한 평균점수는 30점 만점에 26.25점으로, 졸업예정자들이 시험을 통해 필수적인 임상술기능력을 함양하였으리라 기대한다.

〈사인센터 사무국장 이경은〉



간호대학 소식 07

제 58회 간호사 국가고시

2018년 1월 26일(금) 윤중중학교에서 제 58회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이 시행되었다.

올해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에서는 재학생 59명, 졸업생 1명을 포함하여 총 60명의 학생들이 국가고시 시험을 치루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 학생회를 주축으로한 국가고시 응원단은 선배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든든한 아침식사로 김밥과 따뜻한 차, 그리고 열량 공급을 위한 간식 등을 제공하였고, 4학년 학생들은 후배들과 교수님의 열렬한 응원 속에 고사장에 들어섰다.

정재원 부학장, 이남주 학과장, 조성현 교수 등 많은 교수진들이 시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을 보는 동안 학생회 응원단은 죽과 꿀을 준비하여 선배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제 58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100%의 합격률을 기록하였다. 한파의 날씨에서도 무사히 국가고시 시험을 마친 우리 졸업생들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간호대학 소식 08

2018학년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협의회

2018년 2월 20일 가든뷰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의 협의회가 있었다. 최스미 학장의 개회로 회의를 시작하여 간호대학과 간호부문은 지난 학기 활동을 차례로 보고하였다. 또한 1학기부터 새로 시작할 간호대학 학생 실습과 관련하여 프리셉터 운영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2018학년도에 있을 양 기관의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알리고 상호간의 협력을 다졌다.



간호대학 소식 09

2017년도 동계 교수 Workshop

2018년 2월 6일 2017학년도 간호대학 동계 교수 워크숍이 간호대학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간호대학 교수 및 조교 포함 총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 교육 쟁점”과 “학부 교과과정 개선전략”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최스미 학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학원 운영에 대한 논의가 정재원 부학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대학원 공동교과목 운영과 학위논문연습 운영방안, 박사졸업논문 인정절차 및 졸업규정 검토에 대한 교수들의 심도 깊은 토의가 오고갔다. 이어 “학부 교과과정 개선전략”논의를 위한 첫 순서로

김성재 교수가 “학부교과과정 현황 및 개편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발표 후에는 간호학 교육과정 개발모형에 대한 고찰과 전공영역별 교과목 내용, 학점 수, 운영학년 조정 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점심에는 퇴임을 맞은 이명선 교수를 모시고 전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퇴임연 식사자리를 가졌다. 퇴임연에서는 전체를 대표하여 김정은 교수가 이명선 교수에게 감사의 말과 꽃다발을 전달하였고 참석자들 모두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10

제 72회 전기 학위수여식

제 72회 전기 학위수여식이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2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2,328명, 석사 1,843명, 박사 726명 총 4,897명에게 학위를 수여하였다.

성낙인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학생 여러분은 지난 학위과정에서 성공적으로 마쳐 수월성의 잠재력을 입증하였으며, 이제부터 절차탁마의 자세로 잠재력을 꽃피워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성총장은 “리더는 수월성에 더하여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덕성을 겸비해야 한다”며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적 견해가 부딪힐 때 공동체의 깃발을 들 수 있는 큰 인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학위수여식 축하 연사는 서정화 총동창회장과 명예졸업장을 수여받는 정진석 추기경이 맡았다. 서정화 총동창회장은 지성과 겸손 그리고 봉사 가치를, 정진석 추기경은 자신을 소중히 하는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나눔·섬김의 삶 등을 각각 축하사에서 강조하였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다양한 국내외 봉사활동을 실천해온 김 건 학생(27, 수의학과)이 졸업생 대표연설을 맡았다.

전체 학위수여식 행사 후 각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별로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간호대학에서는 학위수여자를 비롯하여 간호대학 학장, 부학장, 학과장 및 지도교수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우리대학은 이번 제 72회 전기 학위 수여식에서 학사 55명, 석사 12명, 박사 13명이 학위를 수여하였고, 14학번 고우리 학생이 학생들을 대표하여 최우수상(서울대 총장상)을 받았다.



간호대학 소식 11

2018학년도 제 58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지난 3월 12일 연구동 강당에서는 간호대학 3학년 학생들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있었다. 행사 전 3학년 학생들은 설렘과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연신 사진을 찍었다.

본격적인 식은 오후 4시에 시작되었다. 서울대학교 본부 관계자분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병원 관계자 분들께서 자리를 빛내 주셨고, 덕분에 강당은 여느 때보다도 가득 찼다. 새로 바뀐 실습복을 갖춰 입은 학생들은 차례로 앞으로 나가 선배들의 축대로부터 불을 옮겨 받았다. 점화식을 도운 4학년 박광훈 학생은 “기분이 묘했다”며, “내가 불을 나누어 주게 되다니 아직도 얼떨떨하다”고 표현했다.

모든 학생이 자리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은 경건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선서문을 읊었고, 동시에 촛불을 켜었다.

이어서는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임난영 간호대학 동창회장의 축사와 최스미 간호대학 학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성낙인 총장님은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 예쁘고 청초하다. 우리 역사에서 많은 것을 바꾼 촛불은,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간호대학 학생들의 성장을 격려했다. 뿐만 아니라 “최스미 학장님을 비롯한 간호대학 교수님들의 노력으로 다가오는 2학기부터 간호대의 관악



간호대학 16학번 최재연

이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최스미 학장님은 “남을 돌보기 전에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전문 간호인이 될 것”을 당부하며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축하한다는 말씀을 남기셨다.

교가 제창 후 1부가 끝난 뒤에는 곧바로 연구동 수정채에서 동창회장님과 학과장님, 그리고 간호대학 학생회장단을 비롯한 학생들의 케이크 커팅식과 건배 제의가 있었다. 임난영 동창회장님이 건배사를 해주셨고, 기념사진 촬영 후 학생들은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자리에 참석 해주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행사가 종료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3학년 고은희 학생은 “난생 처음 선서문도 외우고, 맨손으로 촛불을 잡아 끄고 하는 게 새롭고 생소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 정신을 되새길 수 있었고, 앞으로의 실습이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올해부터 바뀐 실습복에 대해 학생들은 “기존 하얀색 실습



복은 속이 비칠 것 같아 우려했는데, 올해 바뀐 실습복은 색상과 활동성이 많이 개선되었다. 세탁이 까다로워 아쉽긴 하지만 가운데의 조합이 학생에게도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이 좋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올해 3학년 학생들은 성인건강간호학, 아동건강간호학과 지역사회간호학 과목의 실습을 한다. 각각 서울대학교 병원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강북구와 중구 보건소에서 2년간 배운 전공을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첫 실습으로 지역사회간호학 실

습을 하게 된 3학년 신희수 학생은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배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현장 지도자 분들께 감사하며, 올해의 실습을 통해 학생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간호대학 소식 12

환경개선

○ 연구동 강의실 및 세미나실 8개소 화이트보드 교체

- 일시 : 2017. 11. 21

- 내용 : 화이트보드 노후 교체(8 개소)

○ 본관 전층 교수 연구실, 세미나실, 조교실, 실습실, 학생 휴게실, 행정실 등 기구 교체

- 일시 : 2017. 12. 06 ~ 2018. 02. 23

- 내용 : 형광등기구를 절전형 LED등기구로 교체

○ 본관 206,207호 행정실 환경개선

- 일시 : 2018. 01. 05

- 내용 : 행정실 노후 파티션 교체

○ 본관 201호 교수회의실 포토존 스크린 설치

- 일시 : 2018. 01. 25

○ 본관, 연구동, 기숙사 화장실 환경개선

- 일시 : 2018. 01. 29

- 내용 :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른
여자 화장실 위생 수거함 설치



○ 본관 104호 학생 휴게실 사물함 교체

- 일시 : 2018. 02. 08

- 내용 : 열쇠 식 노후 사물함을 디지털기 사물함으로 교체

○ 연구동 2층 강당 의자 및 등받이 리폼(221석)

- 일시 : 2018. 03. 02

〈간호대학 사무 이익규〉

간호대학 소식 13

간호대학 홈페이지 개편

2018학년도 3월 10일 우리대학은 간호대학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오픈하였다. 이번 간호대학 홈페이지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만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최신트렌드를 반영한 '반응형 웹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간호대학은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존의 텍스트 위주의 콘텐츠로 구성되었던 간호학 박물관 홈페이지에 대한 변화요구를 반영하여 간호학박물관 페이지도 새롭게 단장했다.

또한 다른 서버로 연결되었던 이전의 간호학박물관 페이지를 간호대학 서버로 통합하면서 '박물관 견학예약 시스템' 기능을 추가하였고 이를 통해 박물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예약신청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채로운 플랫폼에 맞게 홈페이지가 변형되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바일 사용이 많은 학생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단장한 간호대학 홈페이지는 <http://nursing.snu.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호대학 소식 14

직원동정

○ 행정실

- 행정 담당관 남미경(2018. 1. 1.발령)
- 서무 담당관 장한얼(2018. 2. 1.발령)
- 교학 담당관 고준호(2018. 2. 8.발령)

○ 조교실

〈2018. 2. 1 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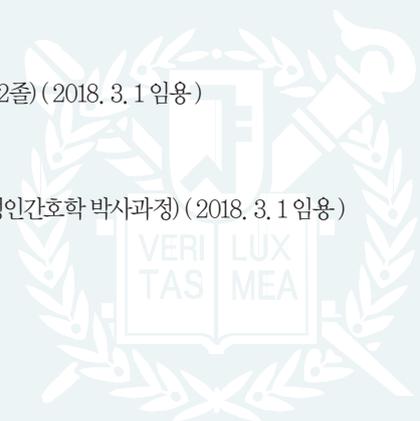
- 기본·재활간호학 조교 김효리(10줄)
- 성인·노인간호학 조교 김희정(13줄)
- 지역·정보·관리 조교 이준아(12줄)

○ Shine Center

- 이경은 사무국장(02줄) (2018. 3. 1 임용)

○ 간호과학연구소

- 이재경 연구국장(성인간호학 박사과정) (2018. 3. 1 임용)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1

다학제포럼(2017.11.23.)

간호과학연구소 융복합중재센터에서 주최한 다학제포럼은 “숲으로 사람을 치유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간호학적인 중재로서 산림복지와 산림치유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2017년 간호과학연구소 다학제포럼

“숲으로 사람을 치유하다” 산림치유와 건강증진

- 일시: 2017년 11월 23일 (목) 14:00 - 17:00
- 장소: 간호대학 제2연구동 104호
- 주관: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융복합중재센터

주 제	사 회: 김성재 (서울대 간호대학교수)
14:00~14:10	인사말 최스미 (서울대 간호대학 학장)
14:10~14:40	지역사회기반의 맞춤형 산림 복지 이인숙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14:40~15:10	도시 숲을 활용한 산림치유 초과 -아동, 대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방경숙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15:10~15:30	휴식
15:30~16:30	토론1: 숲의 건강 증진적 가치 토론2: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을 위한 도시 숲 활용 김기원 (국민대 산림학과 교수) 성종상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교수)
16:30~17:00	질의응답 및 폐회

*등록기간: 2017년 11월 17일 까지
*등록방법: 간호과학연구소 홈페이지(rins.snu.ac.kr)-> 참가신청
*등록비: 무료
*문의: 02)740-8839, tnwjdp@snu.ac.kr



〈IRB 연구윤리교육〉



〈학위논문 작성법〉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3

2018년 상반기 수요학술세미나

상반기 수요학술세미나가 2018년 3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5차례 다음과 같이 진행 될 예정이다.

많은 참여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408호 강의실을 옮겨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교내·외 연자들을 모시고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들로 진행될 예정이다.

	날짜	강사(소속)	주제
1	3월 7일	김윤 교수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	문재인 케어와 전달체계 개편
2	3월 21일	정은하 연구위원 (서울시복지재단)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증진 및 돌봄 전략
3	4월 11일	김창엽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비판적 관점에서의 건강정책 연구와 지식
4	5월 9일	최인철 교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행복에 대한 오해와 진실
5	5월 23일	이정석 연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이슈와 과제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2

2018년 겨울 방학 특강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간호대 대학원생을 위한 IRB 연구윤리교육과 학위논문 작성법에 대한 특강이 2018.1.18. 제2연구동 104호에서 개최되었다. 학위 논문을 준비 중인 석·박사생 총 21명이 참석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일시	강연	강연자
1월 18일(목) 13:00~17:00	IRB 연구윤리교육	김도희 IRB 행정간사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학위논문 작성법	박정희 연구교수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 교실)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4

연구소평가

2018년 상반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간호과학연구소 운영성과를 평가받는 시기이며, 이를 통해 추후 3년간 연구소의 등급과 지원금이 정해지게 된다. 서면평가는 2018년 4월~5월에 걸쳐 이루어지며 현장평가는 2018년 5월~6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5

대학원생 연구활동 지원

간호과학연구소는 대학원생의 간호학문 탐구를 지원하고, 연구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대학원생 학술모임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 박사, 또는 석박통합 과정 대학원생
- 신청기간: 2018년 3월 21일~4월 13일
- 지원규모: 학술모임(5~7명/그룹)별 각 100만원 지원/ 총5개 그룹
- 신청방법: 간호과학연구소 이재경 사무국장에게 전자메일 (smu07cdi@snu.ac.kr)접수
- 제출서류: 학술모임의 신청서 및 계획서
- 계획서 평가지표: 참신성, 기여가능성, 실현가능성
*세부전공이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되는 경우 우대
- 학술모임의 의무: 학술모임은 2018년 4월~10월(약7개월) 기간동안 자유롭게 다양한 방법의 모임을 진행하고, 그 학술모임의 결과를 2018년 2학기 대학원생들에게 발표하고 결과보고서를 간호과학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후 학술대회 포스터 제출이나 학회지 등재 등의 성과를 보고할 것을 권장).

〈이재경 간호과학연구소 연구국장〉

학부 소식 01

모두의 잔물결이 하나의 큰 물결로, 제 27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 '파랑'



16학번 김도건 학생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27대 학생회장 김도건입니다. '모두의 잔물결이 하나의 큰 물결로, 파랑' 선거본부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12월 1일부로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본부 '파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선거본부 '파랑' 과 연합선본으로 출마하였고, 모두가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각 단위는 선거기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협의하며 학우들의 복지증진과 연건캠퍼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호대학 차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간호대학 관악캠퍼스 이전에 관한 공론화와 협력은 물론, 대한간호협회 직선제 등 간호사와 관련된 여러 현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논의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와 적극 협력하며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의 물리적 거리를 극복, 여러 총학생회 사업의 연건캠퍼스 공평 추진과 학우들의 교류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 소식 02

제 27대 학생회 활동

1. 2018학년도 신입생 환영회

2018년 1월 17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수시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대학입시에서 점차 수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가를 하였고 아직 고등학교 졸업식도 하지 않은 신입생들은 새내기로서의 설렘을 품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처음 보는 자리였기 때문에 다소 어색하기도 했지만, 다양한 미션과 뒤풀이를 이어가며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동기생이 동기생을, 선배가 후배를, 후배가 선배를 처음 만나며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 국가고시 응원사업

2018년 1월 26일, 한기가 옷깃을 파고드는 추운 날 4학년 선배들의 간호사 국가고시가 있었습니다. 간호대학 학생회에서는 4년간 열심히 달려온 선배님들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간식과 점심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호대학 행정실과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동창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추운 날이었지만 선후배가 함께 모여 의기투합하며 뜨거운 열기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간호대학 기숙사인 합춘생활관 관장님과 부학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실 직원 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4학년 선배님들을 응원해주셨습니다. 간호대학의 여러 구성원이 함께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3. 개강총회

2018년 3월 9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개강총회가 혜화역 부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수많은 학우 분들께서 참석해주어 개강의 분위기가 만연하였으며 모두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 총애티

2018년 3월 16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간호대학 총애티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대학생활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애티, 선후배 모두가 함께 짐을 싸들고 애티장소로 이동하여 낭만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애티장소는 서울 북한산 부근이었는데요, 저녁으로 오리고기를 먹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간호대학 총 MT〉

5. 간호대학생 규합 추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는 전국에 있는 여러 간호학과 학생들을 규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간호협회 직선제부터 의료인력 관련 법안, 아산병원 사태 등 간호사의 처우, 나아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는 훗날 전문 간호인으로서 국가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게 될 간호학생들이 다양한 문제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을, 나아가 보다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간호대학생의 대표단체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는 이러한 사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새로운 조직 구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6. 간호대학 멘토링 프로그램(NMP)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는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업, 대외활동, 동아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주기위해 매년 간호대학 멘토링 프로그램(NM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선배와 두 명의 후배, 총 3명이 하나의 조를 이루어 여러 번 만나게 되어 조별로 각자의 활동을 계획하고 기록하며 선후배 사이의 돈독한 정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학기 초이지만, 벌써 여러 조들이 다양한 활동을 완료하여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물론, 선후배 사이의 돈독한 정을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7. 스터디사업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는 매 학기마다 스터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팀을 짜서 함께 공부하며 서로를 도와주고, 학생회에서는 팀별로 공부시간을 측정해 우수한 팀에게 상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2학기까지는 전공공부에 국한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폭 넓은 교양 지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사업의 범위를 교양과목까지 넓힐 예정입니다. 학생회 차원에서 학생들의 공부를 장려할 수 있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학부 소식 03

2018 새내기 새로배움터 성황리에 마쳐

지난 2018년 2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새내기 새로배움터가 산정호수 한화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는 간호대학 학생회 주관으로, 2, 3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새내기 새로배움터 준비 위원회(이하 새준위)'에서 계획과 진행을 맡았다.

작년과 달리 이번 새터의 경우 신입생의 수강신청 일정에 변동이 생기고 새터 예정일과 신입생들의 고등학교 졸업식 일정이 겹치는 등 우려 곡절이 많았다. 그럼에도 새준위 학생들의 노력으로 어느 때보다도 성공적인 2박 3일의 새터가 진행될 수 있었다. 준비 과정에 대해 새준위 총 책임자 3학년 이한별 학생은 "신입생의 첫 간호대학 행사인 만큼 모든 새준위가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알찬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만들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다"며 "특히 행사 기간 동안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 결과 실제로도 더 신선하고 색다른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어떤 안전사고도 없이 무탈하게 새내기 배움터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새터의 첫 일정은 올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시작되었다. 참가 학생 50여 명은 교육관 2층 강당에 모여 안전한 새터를 위한 강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 학교 측에서 제공해 준 점심식사 후 학생들은 김인희 인권센터 전문위원의 인권/성 평등 교육 및 손병권 행정관의 환경안전교육을 수강했다.

이후 신입생들은 배정받은 반별로 데이반과 나이트반이 함께, 이브닝반과 오프반이 함께 버스에 탑승했다. 학생들은 서로 데면데면한 모습이었지만 자기소개를 진행하고 새터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공유하며 분위기는 점차 화기애애해졌다.

저녁식사 후에는 본교 김정은 교수님의 <Future Healthcare empowered by Digital Technology>를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다. 기술의 영역과 접목시킨 신선한 주제였던 만큼, 신입생들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교수님의 기초소양교육이 끝난 뒤에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있었다. 학생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고 동기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마련되어 첫 만남의 어색함이 많이 해소되었다.

이튿날은 재학생(3학년 박준희, 나민선, 김도건 학생)의 강연이 있었다. 재학생 선배들이 생생하게 수강신청 팁과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차게 이용하는 법, '대학생'으로서 폭넓은 경험을 하는 법을 전해 주었다. 18학년 박재이 학생은 강연과 책자에 대해 "학교생활 지도서처럼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책자가 없었다면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연 후에는 운동회와 선배와의 만남 시간을 가졌다. 새준위 문화기획팀에서 준비한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며 반별로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어서 저녁에는 자율적인 장기자랑과 동아리 공연을 포함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었다. 새터 기간동안 학생들이 틈틈이 준비한 장기자랑을 함께 즐긴 뒤 간호대-의대 연합 합창단과 관악 미술 동아리 몽환이 각각 공연을 펼쳤다. 새터 마지막 밤의 마지막 순서는 간호대학 댄스 동아리 핑크미션이 장식했다.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 신입생들은 "선배,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며, "특히 강요가 없어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 후 만족도 조사 결과 시설에 대한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준위 3학년 나민선 학생은 "새터를 준비하면서 방학을 다 보냈는데, 참여한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겨준 것 같아 보람 있었다.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소감을 남겼다.

2018 새내기 새로배움터의 더 많은 사진은 간호대학 학생회 페이스북 ([facebook.com/SNUnursing](https://www.facebook.com/SNUnurs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부 소식 04

동아리 탐방: 서울대 학생호스피스 모임



간호대학 14학번 배현지

간호대학 14학번 배현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연합동아리 '서울대 학생호스피스 모임'입니다. 2014년에 만들어진 신생 동아리로 서울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센터와 연계하여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당장 죽음을 향해 더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을까요?

학생호스피스는 이런 물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 겪는 죽음에 대한 고민을 더 빠르고, 복잡하고, 격하게 겪게 될 미래의 의료인들에게 실질적인 탐구의 장과 동료들을 마련해주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동아리의 주된 활동은 정기세미나입니다. 월 1~2회씩 1년 과정으로 짜여 있으며 전문가의 강의와 학생들의 토의로 이루어집니다. 호스피스센터 간호사부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전문봉사자, 사회복지사, 목사 등 다양한 호스피스 팀 구성원으로부터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차원을 아우르는 생생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대병원 내에서 완화의료 관련 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기도 합니다. 아로마 마사지, 시화, 토요다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왔으며 작년에는 서울대병원 호스피스센터의 「서울대병원 호스피스 봉사 매뉴얼」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전부터 행해지던 호스피스 봉사 방식에 대해 각종 연구 등 합리적 근거를 찾아 검토 및 수정하였으며 특히 치료적 의사소통 부분은 온전히 담당하여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원내 호스피스 워크숍 참여, 호스피스기관 견학, 단체봉사, 기부바자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최근 서울대병원 소아완화의료 사업인 꿈틀꽃씨 서울대생 봉사자들을 영입하고, 고려대학교 학생호스피스 동아리와 연계하여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또 다른 도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호스피스의 목적은 첫 번째, 죽음에 대한 탐구의 장을 제공하고, 두 번째,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를 응원하며, 세 번째, 저희와 저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의 죽음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더 좋은 죽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대학생 호스피스



서울대병원 호스피스센터 워크숍



기부금마련 바자회



월 1-2회 세미나



포천모현/샘물호스피스 기관 견학

학부 소식 05

학생 이야기 ① - 간호, 정치라는 날개를 달다



간호대학 15학번 박광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박광훈 학생입니다. 저는 작년 2017년 2월 대한간호정우회에서 주관한 '제1회 청년간호사·간호학생 국회의원, 보좌관 양성'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이 기회를 통해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 및 보좌관님들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한민국 입법부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을 수료하는 과정은 일주일의 단기 과정으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기간 안에 실제 다양한 정당에 소속되어 일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을 만나고 또한 여러 정당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보좌관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회 안에서 이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매일 바쁜 전공수업과 임상실습으로 시간을 보내는 저로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더 다양한 세계로 시야를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회' 라고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가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그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국회가 담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의회의 권위와 의회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삶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제게 아주 크게 흥미로운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이 교육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지금 열심히 간호학을 배우며 실습을 하고 있는 간호 학생의 입장에서 고민했던 것 중 하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매일 임상의 최전선을 지키며 일하고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전문 의료인으로서 더 큰 긍지와 함께 더 좋은 근무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고민을 통해 결국 이것은 간호사를 전문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을 보편화 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법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을 바꾸는 등의 정치적 힘을 발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간호사들도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진출하여 더 많은 역할들을 해냄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를 많이 배출하고 이를 통해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과 시선들을 우호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직 아는 것보다 배울 것이 더 많은 간호 학생에 불과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지금의 열정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배워나가, 미래에는 직접 병원 현장에서 임상 경험을 몸으로 터득하여 온전한 전인간호를 저 스스로 해낼 수 있을 때까지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병원의 간호 관리자의 위치에 올라가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을 길러 앞선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간호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임상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까지 오르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번 국회의원·보좌관 교육과정은 저에게 국회 그리고 정치라는 또 다른 세계를 알려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인간사랑'이라는 위대한 가치를 담고 있는 '간호'가 '정치'라는 날개를 달아서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이 그 누구보다도 능력으로 인정받고, 환자로부터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원대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금 제게 주어진 과제들부터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 소식 05

학생 이야기 ② - 한 달간의 SNU in Tokyo 체험기



간호대학 17학번 차선우

SNU in World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약 2~4주간 해당 국가에서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국제협력본부 주관 해외연수프로그램입니다. 작년 여름 제가 참여한 SNU in Tokyo는 2주간 도쿄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도쿄 라운드와 2주간 서울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서울 라운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전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업을 듣고, 점심시간 후 오후부터는 오전에 들었던 수업 내용과 관련된 필드 트립을 다녀오는 식으로 공식 일정이 할당되어 있었습니다. 5개 조로 나뉘어 조별로 공식 일정을 진행했는데, 각 조는 서울대 학생들과 도쿄대 학생들로 구성되어 한 달간 일본·한국에서의 활동을 함께했습니다.

제가 SNU in Tokyo에 참여하기로 한 이유는 해외에서의 연수체험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라는 점도 있지만, 일본인 학생들과 한 달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컸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활동은 전부 영어로 진행되었기에 일본어를 할 줄 모르더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지만,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 다른 일본인 친구들과 더 편하게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간간이 이런저런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저와 사고방식이 비슷한 부분이나 다른 부분을 소소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식 일정이 비어 있

는 평일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 시간이 맞는 조원들끼리 만나 도쿄나 서울 시내를 돌아보곤 했는데, 그 덕분에 조원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수업 내용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 걸친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들으며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닮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주제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제의식이나 의견 등을 들으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고민해볼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재일 교포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한국과 일본 그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역사'가 사실은 상당히 불완전하며 편협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사회가 간호학에 대한 전공지식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총체적으로 요구하는 글로벌 사회인만큼, 전공지식을 활용하는 데 힘을 실어줄 전공 외 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은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리적·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일본에 대한 교양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SNU in Tokyo 프로그램은 저에게 정말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원 소식 01

2017학년도 전기 학위취득자 논문 목록

간호학 석사(12명)

이경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Physician Assistant의 실무 경험
송경미	만성호흡기질환 노인의 흡입기 복약순응과 흡입기 사용의 정확성
김영민	암진단 고지에 대한 암환자와 의료인의 선호
최민진	응급실 소생실 이용환자의 특성과 응급간호 업무 수행 분석
정은지	국내 외국인 조종사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수희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의 불확실성, 대처와 적응
최혜림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 중인 초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
변아정	보호자와 함께하는 아동용 체중관리 스마트폰 앱 개발 및 평가
박지예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경험
서송화	간호사관생도들의 재난인식, 재난준비도와 재난간호역량
정민영	일개 요양 병원 방문객의 순위생 수행 실태 조사
조도선	해군 간부의 건강 관련요인 조사연구

간호학 박사(13명)

김은경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간호사의 삶의 질 모형 구축
김인경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 긍정심리자본과 직무 재창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정선화	간호 현장 안에 있는 태움의 발생과 지속에 관한 근거 이론
이미미	중환자 가족을 위한 센스메이킹 촉진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김향란	한국 거주 조선족 노인이주자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이고은	20대 비만 여성의 큰 몸으로 살아가기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장해나	간호대 학생의 환자안전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김찬희	우울증상을 가진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집단 의미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하지연	지역사회 거주 전허약 상태의 노인을 위한 대상자 중심 허약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황선영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한 군 생명존중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김혜숙	유방암 여성을 위한 성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정수용	간호사 수요추계의 예측정확도와 영향요인 분석
서지영	가족회복력에 근거한 유방암 생존자의 심리사회적 적응 모형구축

대학원 소식 02

2018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8년 2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 간호대학 제 1연구동 강당에서 2018학년도 간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신입생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체 오리엔테이션 이후 신입생들은 각 전공별 교수님들과 함께 대학원생으로서 앞으로의 비전

과 연구방향, 진로에 대해 담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18학년도 대학원 신입생은 석사과정 28명, 석·박 통합과정 18명, 박사과정 19명으로 총 65명이다.

과정	성인간호학	모아·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간호시스템
석사 (28명)	성인간호학 14명	모성간호학 4명 아동간호학 4명 정신간호학 5명	간호관리학 1명
석·박통합 (18명)	성인간호학 4명	아동간호학 1명 정신간호학 1명	지역사회간호학 2명 간호관리학 8명 간호정보학 2명
박사 (19명)	성인간호학 10명	모성간호학 1명 아동간호학 1명 정신간호학 3명	지역사회간호학 1명 간호관리학 2명 간호정보학 1명



대학원 소식 03

대학원생 이야기 ① - Sayangku (Indonesian language): My love

Farah Dineva R.
(Master Program,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A thought of living thousands miles away from my hometown gave me mixed feelings and haunted me for few weeks. I was wondering what life is going to serve me in a new country. Sweet excitement? Or maybe bitter loneliness? Carrying my curiosity, I went all the way from Indonesia to South Korea. It was definitely the longest 7 hours ever in my whole life and, I must say, a flight filled with a bucket of tears.

Although it was my first time in South Korea, this country was not fully unfamiliar to me. I learned and tried many things about South Korea: language, food, and culture. Just like a girl who madly in love, I decided to choose South Korea for my scholarship application. "Everything will be much easier if I like and familiar with the country", I was whispering to my reflection in the mirror, ensuring myself that I could live a smooth life.

Guess what? Adjusting my new life in South Korea was not easy at all. Mr. John W. Berry, an Acculturation Theory developer, definitely knew what he was talking about when he worked for that theory. At that time, I was confused, lonely, and sadly there was no way back. But then, God destined me to meet really nice people in really nice place.

There was a lot of beautiful moments between Indonesian and Korean students. Friends who became so friendly and laughed together with us. Friends who willing to help us when we went blank because of the language barrier. Friends who suddenly greeted us with Indonesian language at class. Friends who said, "Did you skip your lunch, Farah?" and suddenly came back with snacks and drink then gave those stuffs to me. It will be such a lie if I say those moments did not make me cried.

The professors make me fall in love too. I still remember when a professor brought us, Indonesian students, to visit a palace along with Korean students before class to introduce Korean culture. Other professors kindly translated for us during guest lectures and it gave us warmth feeling despite of extremely cold weather in Korea. Seeing them become so passionate during the class always fills my energy up. I am so amazed at how every professor in SNU College of Nursing makes sure that each student believes in their own ability.

Many professors told us in class, "I believe that all of you will be a leader in nursing area in the future." I was choked by my own tears whenever I heard it. Professors usually give students knowledge and motivation. But in SNU College of Nursing, they even give more than that. They give you faith and (to make it even better) hope. My sincere appreciation also belongs to SNU College of Nursing staffs who always stay with a handful of help.

Time flies. Now, we are happy to live our lives in South Korea. We have amazing support systems: a bunch of kind souls and weekly dose of 떡볶이. Life probably can not be perfect but hey...life is not that bad at all if you take your time to figure out how to deal with it. We won over our own doubt and fear. More then ready to enjoy all precious experiences. Falling in love again and again with this country.

For every bright smile, warm hug, a pat on shoulder, small talk, encouraging word, joyful laugh, and sweet memory.

For every professor, staff, and friend,

Thank you so much. You will be kept inside of our hearts. In the highest place. With beautiful trace.

With much love,
Indonesian students



대학원 소식 03

대학원생 이야기 ② - 대학원 자치회장 · 부회장 수기

이형숙
간호정보학
박사과정강유정
모성간호학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 자치회는 학우들이 행복하게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치회는 교수님의 학부조교를 맡은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져, 각 연구실에 소속된 대학원생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2018년도 제1차 대학원 자치회의에서 자치회장에 간호정보학 박사과정의 이형숙, 부회장에 모성간호학 석사과정의 강유정이 선출되었다.

간호대학 대학원에는 연구실에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Full-time 대학원생과 임상간호사를 비롯하여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며 학업을 병행하는 Part-time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져있다. Full-time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실 환

경을 개선하고, Part-time 대학원생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지하는 등의 지원 활동을 지속하고자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대학원 생활에 대한 건의 또는 문의, 채용 정보, 수강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새롭게 단장한 간호대학 홈페이지의 대학원게시판을 통해서도 제안이나 건의사항을 남길 수 있다. 학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그만 의견이라도 서로 나누다 보면 더 즐거운 대학원과정을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동안 대학원생 복지와 자치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이영진 전임회장님, 류현주 전임부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번 연도에도 그동안 자치회 활동에 이어서 대학원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대학원 소식 04

수상실적 및 연구지원금

연구지원금	수여자 이름	전공
백양 이영복 장학금	장해나	간호관리학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한마음 장학금	김보라	아동간호학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한마음 장학금	황신영	성인간호학
제9회 한국의료페널 학술대회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수상(100만원)	김은주, 김향	지역사회간호학

대학원 소식 05

교수임용

본교 대학원생 중 2018년 교수 임용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용 대학	임용 대상자	전공(담당 교과목)
가천대학교	이주연	간호정보학(모성간호학)
건양대학교	이현정	성인간호학
건양대학교	장형은	간호학
건양대학교	하지연	성인간호학
국립안동대학교	배현지	간호관리학
남부대학교	최한나	비판적 사고와 간호과정, 간호실무역량평가
수원여자대학교	유주연	아동간호학
부산가톨릭대학교	이지산	간호정보학(아동간호학)



대학원 소식 06

국제학술대회 참석명단

본교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APHA) 2017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and Related Factors of Children in Vulnerable Population in Seoul, Korea: A Focus Group Study(포스터 발표)	강경림, 송민경
China-Japan-Korea Joint Symposium on Medical Informatics (CJKMI) 2017.11.16.-17	
Nurse's needs analysis for developing care robots using robot-care, game-care, edu-care(포스터발표)	김미령
Multidisciplinary care robot design for pediatric patients and their adaptation of hospitalization(포스터발표)	유형주
Symptom Management Using Multiple Connected mHealth Technologies: Smartphone Application, Health Tracker, and Scale(포스터 발표)	이지산
User Needs Assessment for Development of Point-of-Care Robot System(구두발표)	이형숙
21st East Asian Forum of Nursing Scholars & 11th International Nursing Conferences (21st EAFONS & 11th INC) 2018.1.11-12	
Evaluation of Psychometric Properties of Person-Centered Practices in Assisted Living (PC-PAL): Staff version in Korean(포스터 발표)	김다운, 이효진
Postpartum fall-risk factors in obstetric units(포스터 발표)	김서연, 김혜원
Factors influencing care behaviors of certified care assistants for older adults with dementia (구두 발표)	김지연, 탁성희
Attitude and intention of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among chi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 (포스터 발표)	김혜원, 이은주, 이영진, 김서연
Relationship between Person-centered Climate and Staff Outcomes in Korean Long-term Care Facilities (포스터 발표)	사공혜, 김다운, 이효진
Self-care of diabetes in adults with disabilities: systematic review(포스터 발표)	양은진, 김희정, 류현주, 장선주
Experience of violence from the clients and coping methods among ICU nurse working a hospital in South Korea(포스터 발표)	유혜진, 서은영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in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윤영희, 이명선
Effect of Crowding and Nurse Staffing on Time to Antibiotic Administration Among Patients with Pneumonia in an Emergency Department(포스터 발표)	이주현, 조성현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erson-centered Climate Questionnaire-Resident Version in Korean(포스터 발표)	이효진, 김다운, 사공혜
An Observational Study of Hand Hygiene Compliance among Visitors in a Long-term Care Hospital(구두발표)	정민영
Prevalence and Predictive Risk Factors for Frailty of Older Adults in an Urban Area: Findings from a Prospective Cohort Study Based on Health Behaviors(포스터 발표)	하지연
The 13th Korea Robotic Society Annual Conference (13th KRoC) 한국로봇종합학술대회 2018.1.22-24	
Point of Care 로봇의 프로토타입 평가와 사용자 요구 분석(포스터 발표)	이형숙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Informatics and BioMedical Sciences 2017 (ICIIBMS) 2017.11.24-26	
Assessment of User Needs for the Teleconsultation Robot and the Bedside Robot Using Simulation(포스터 발표)	이형숙
2017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care 34th international conference (ISQUA's 34th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necessity of expanding rapid response team to the internal medicine wards in improving patient safety (포스터 발표)	양은진

동창회 소식 01

간호대학 졸업 30, 40, 50, 60주년 기념 모교방문

2017년 10월 12일, 졸업 30, 40, 50, 60주년을 맞이한 동문들은 오전에 관악캠퍼스 서울대발전기금 본부에서 진행되는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이후 4학년 학생들의 안내를 받으며 캠퍼스투어를 하며 발전된 모습에 감탄을 하며 자랑스러워하였다. 동창회 동문들은 새로 지은 도서관의 웅장함과 건축미, 그리고 구 도서관과의 어울림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이후 간호대학으로 옮겨 동창회에서 마련한 뷔페로 점심식사를 하며 즐거운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2시부터는 간호대학 강당에서 학장의 축하인사로 모교방문행사가 진행되었다. 동창회장의 환영인사가 이어진 후 동창회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 발전을 위해 모은 기부금에 대해 간호대학에서는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선후배 동문들의 덕담과 40, 50, 60주년 동문의 간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후, 30주년 동문의 멋진 공연이 있었다. 강당 로비의 포토존과 간호대학 옥상에 만들어 놓은 야외정원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동창회 소식 02

총동창회 홈커밍데이 겸 동문가족 화합 한마당

2017년 10월 15일 총동창회 주관으로 홈커밍데이 겸 동문가족 화합 한마당이 관악캠퍼스 버들골에서 진행되었다. 관악 캠퍼스는 울창한 수목 사이로 가을빛이 물드는 시기여서 더욱 멋진 풍광을 연출하였다. 점심식사 후에는 다채로운 놀이와 경품추첨 행사가 있었다.



동창회 소식 03

신년인사회

2018년 1월 9일 오후 3시에 간호대학 강당에서 신년인사회가 있었다. 임난영 동창회장은 인사말에 동창회 활동으로 표지가 새로워진 동창회보 발간과 새롭게 진행된 재학생 패널 수업에 대해 얘기하며 찾아가는 동창회가 되기 위해 힘쓰겠다고 하였다.

최스미 회장은 새해인사와 함께 건강하게 한해를 보내자는 덕담으로 새해인사를 하였으며 특히 각 병원에게 간호학생들 교육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함을 표하였다.

2부는 동창회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유숙자 전 동창회장장과 이소우 명예교수 및 각 기관에서 온 동문들, 특히 지방에서 온 동문들도 많았으며 미래의 신입회원인 간호대학 학생들도 많이 참석하였다. 동문들의 소개와 학생대표의 인사로 선후배간의 화기에애한 덕담이 이어졌다. 기념촬영을 한 후 다과를 함께 하며 신년회를 마쳤다.

동창회 소식 04

1학년 학생을 위한 간호 특강

2017년 10월 20일 간호대학 1학년 '간호학개론' 시간에 특강을 하였다. 강의는 임난영(71졸) 동창회장, 성영희(76졸) 부회장, 김주현(77졸) 이사가 진행하였다.

간호직에 40년 이상을 종사한 선배들이 간호학에 갓 입문한 학생들에게 간호의 우월성과 간호직의 이해 및 전망 등의 강의를 하였다. 1학년 학생들은 동창회장이 준비한 맛있는 샌드위치와 음료를 먹으며 간호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창회 소식 05

동문동정

- 조경숙(79졸) 2017년 12월 한국간호과학회 부회장으로 취임
- 최스미(80졸) 2017년 12월 한국간호과학회 감사
- 정면숙(81졸) 2017년 12월 한국간호과학회 감사
- 장선주(02졸) 2017년 12월 한국간호과학회 서기이사
- 김미순(87졸) 2018년 2월 삼성서울병원 부원장으로 승격
- 박인숙(81졸) 2018년 3월 서울시 간호사회 회장으로 취임
- 곽윤희(78졸) 2018년 3월 한국간호협회 부회장
- 조정숙(82졸) 2018년 3월 한국간호협회 이사



간호대학 졸업 30, 40, 50, 60주년 기념 모교방문



신년인사회

동창회 소식 06

동창회교육연구재단18학년도 1학기 장학생 명단

간호대학 동창회에서는 2018학년도 1학기 동창회 장학금 645만원을 모교 학부 재학생 10명에게 지급하였다. 장학금 수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학금명	구분	성명	장학금액
김현희(63졸) 장학금	석사	정하나	100만원
임난영(71졸) 장학금	석사	백승화	100만원
이윤경(69졸) 장학금	박사	김가혜	80만원
김기주(70졸) 장학금	석박통합	장아람	60만원
신정희(79졸) 장학금	석사	유민정	60만원
57년 졸업동기회 장학금	학사	곽미주	40만원
임영숙(70졸) 장학금	학사	권서아	40만원
백월량(63졸) 장학금	학사	김지영	25만원
간호대동창회 84졸업동기회	학사	조은별	100만원
간호대동창회(강신자(63졸) 장학금)	학사	권재현	40만원

간호대학 발전기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간: 2017년 9월 1일~2018년 2월 28일

학사동문 및 간호대학 교수			
간호대학 77년 졸업동기	간호대학 87년 졸업동기	간호대학 2018년 졸업동기	간호대학 교수협의회
간호대학동창회	강자현	김수호 박경희(1974)	김영아(1988)
서울의대간호대 합창단	유주연(2002)	윤주영(2002)	이남주
이선화(2013)	이인숙(1977)	임난영(1971)	정현명(1992)
채선미	최스미(1980)	최희승	탁성희(1990)
황보영(1996)			

기타	
케녹스사운드	후원자00271(간호대학 관악캠퍼스 건립기금)

발전기금 안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학술 교류 활동 및 연구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발전기금 참여방법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CMS 등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서는 간호대학 홈페이지 또는 간호대학 담당자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농협 079-17-065324 서울대발전기금(간호대학)
신한 100-023-643537 서울대발전기금(간호대학)

문의처 : 간호대학 02-740-8802

*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만원이면 선한 인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후원금 전액은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매월 30만원 X 저소득층 학생 약 850명에게 지급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1666-2930

www.snu.or.kr 에서 내려받은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으로 찍어 보내주시거나 참여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02-880-8004)